

《기생충》과 《천주정》에 나타난 사회 시선

— 갈등과 폭력의 무게 —^①

서주영, 양종근, 이윤영, 이미경

《천주정》과 《기생충》은 모두 사실주의에 입각한 영화로, 갈등의 주요 주체가 상·하 계급인 점, 각 국가의 사회 구조적 문제가 인간관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서사 방식과 갈등의 성질은 각기 다른 특징이 있다.

I. 《기생충》의 갈등 형태

기생충은 두 가지 비하의 의미를 전달한다. 기생은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비하이고, 층은 인간 이하라는 의미다. 즉 경제적 기생으로 인해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다. 김기택 가족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하층계급이다. 박 대표는 성공한 IT 기업가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한국의 상류계급이다. 박 대표의 지하실에 터를 잡은 국문광 가족은 또 하나의 하층계급이다. 《기생충》이 서사화하는 이들의 갈등은 수평 갈등과 수직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 갈등은 김기택 가족과 국문광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고, 수직 갈등은 박사장과 김기택 가족 사이에서 나타난다.

1. 수평 갈등

하층계급은 수평 관계다. 하지만 상위계급이 하위계급의 노동력을 취할 때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는 노동력을 선택하려 하므로, 하층계급은 경쟁을 통해 선택받으려 한다. 사회적으로 낙오된 김기택 가족은 국문광 가족과의 취업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계속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들의 갈등과 폭력은 각자의 이질적 성격에 기반하고 있다.

(1) 국문광 가족 — 부에 대한 숭배와 복종

국문광 가족은 사회 질서를 철저히 지킨다. 국문광은 철저한 복종을 통해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가정부로 살아남았다. 오근세에 대한 묘사는 부에 대한 숭배와 복종을 드러낸다. 그는 국문광이 가져다주는 젓병과 바나나를 먹고, 책상에는 한국의 유명 운동선수, 한국과 세계의 유명 정치가 사진을 꽂아놓았다. 그는 박사장의 퇴근 시간에 ‘리스펙트(respect)’를 외치며 전등을 켜고 끈다. 그는 빈곤한 삶을 한국적 자부심과 상위계급에 대한 충성과 복종으로 살아가는 우경화된 우매한 국민이다. 오근세의 책상 위에 놓인 법학 서적은 그의 정신이 법적으로 지배당하고 있고, 통제된 생활에 적극적으로 따르며, 편안하게 여긴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그들은 사회 경제적 요구에 따라 자신들을 규제하여 자식도 낳지 않았다. 영화 엔딩에서 오근세의 분노는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했던 상위계층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궁핍한 생활에 위기를 주어 그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한 김기택 가족을 향했다.

(2) 김기택 가족 — 거짓과 폭력을 통한 부의 획득

김기택 가족의 생존 법칙은 오근세와 판이하다. 그들의 생존 방법은 거짓과 폭력이며, 도덕적 합리화 방식은 가족주의이고, 내적 원동력은 부에 대한 욕망이다.

① 거짓과 폭력, 그리고 가족

김기택 가족의 생존 방식은 거짓과 폭력이다. 이들은 신분을 위조해서 일자리와 사랑을 얻는다. 김기택과 박충숙은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없어져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김기택 가족은 기존의 운전기사와 가정부를 제거하기 위해 거짓과 폭력을 행사한다. 김기택 가족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좀 더 자신에게 집중’한다. 김기우는 가족의 이름으로 산

①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과제번호: NRF-2019S1 A5C2A04082394) 과제명칭: LMS-ACE 교육과정 개발 및 인문교육 시스템 구축 - 철길로 이야기하는 동아시아 도시인문학 -

수경석을 들고 국문광 가족을 죽이러 지하실로 내려간다. 오근세는 아내가 죽자 칼을 들고 지상으로 올라가 김기택의 아들과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즉, 가족이라는 이름은 부정한 행위를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명분이다.

② 욕망의 이름으로

‘산수경석’은 김기택 가족의 부를 향한 단단한 욕망과 무게를 상징한다. 이 욕망은 폭력과 거짓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무디게 만들어준 근원적인 힘이며, 김기택 가족과 국문광 가족을 구분하는 성질이다. 국문광 가족은 철저히 금욕적 생활을 하며 자식도 없다. 하지만 김기택 가족은 철저하게 욕망을 추구하며, 못살지만 아들딸이 모두 있다. 오근세가 욕망의 돌로 김기우를 죽음 가까이 이르게 하고, 김기정을 칼로 찔러 죽인 것은 김기택 가족에 대한 질투이다. 김기택 가족 역시 박사장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다. 하지만 이들의 존경에는 상위계급의 ‘착하다’라는 성격이 그 핵심을 이룬다. 이 ‘착하다’라는 의미는 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뜻이며, 본질은 자신들의 거짓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하지만 그들은 박사장의 ‘착함’을 오해하고 있다. 박사장의 ‘착함’은 외면적 허식이며, 그 본질은 멸시와 무관심, 우월감이다.

2. 수직 갈등

수직 갈등은 순종적인 국문광 가족에게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 갈등은 김기택 가족과 박사장 가족 사이에 주로 표현되고 있다.

(1) 계급의 경계

‘선’은 박사장의 인식에서 첨예하게 표현된다. 박사장은 누구에게나 친절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고용인들을 존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그의 친절은 자기 가족이란 계급의 선을 넘지 않고, 그의 촉각은 선의 경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박사장은 윤기사가 자신의 차에서 애정행각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김기택이 그에게 ‘그래도 부인을 사랑하시죠’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전자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행위적 침범이고, 후자는 가정사에 대한 정서적 침범이다. ‘선’은 그의 사회적 자의식이 만든 계급적 우월감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는 윤기사가 성적으로 문란하며 마약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계급 구별성을 강화하는 의식 형태다.

(2) 인간의 도구화

‘선’에 대한 인식은 인간을 도구화하는 시각으로 체현된다. 윤기사의 문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문제는 박 사장이 사실관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와 고용인의 인간관계는 철저히 고용인이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에서 멈춘다. 국문광이 해고를 당했을 때의 슬픈 표정은 그녀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자신을 동정한 것이다. 박사장은 국문광이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대신할 사람은 많다’라고 말하고, 오직 그녀가 제공했던 ‘갈비찜’만을 추억한다.

(3) 인식의 전통 속성

박사장의 사고는 노비를 대하는 노주(奴主)의 인식과 닮아있다. 노주는 노비가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고, 노비에 대한 인간적 이해는 표면적일 뿐이다.^① 노비의 경우는 겉으로는 주인을 따르지만, 속으로는 주인과 대립하며, 주인의 눈을 피해 자신의 작은 이익을 취한다.^② 이들의 타협 선은 노비가 노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조건으로 노주가 작은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지점에 있다.^③ 이러한 점은 박사장과 김기택 가족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이 영화는 ‘노비열전’의 현대판이다.

(4) 인간에 대한 근원적 차별

① 정성미, <조선시대 사노비의 사역영역과 사적영역>, 《전북사학회》, 38, 2011.

② 이해정, <노비(奴婢)의 기상(記上)행위와 쟁송(爭訟)>, 《한국사상문화학회》, 87, 2017.

③ 이해정, 위의 논문.

‘냄새’는 박사장이 규정한 선을 넘나드는 요소이며, 계급성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냄새는 행동이나 생각과 달리 통제를 벗어나며, 자기 계급은 인식할 수 없고 오직 다른 계급에 의해서만 인식된다. 또, 냄새는 김기택 가족뿐만 아니라 오근세의 몸에서도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식되는 하위계급의 사회적 존재 본질을 상징한다. 냄새에는 비하의 의미가 있다. 냄새는 동물성을 의미하며, 곧 존재의 하급성을 의미한다. ‘선’이 인식의 경계라면, ‘냄새’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차별과 멸시다.

(5) 계급 갈등의 폭력적 해소

모르스 신호는 하층계급이 사회를 향해 보내는 구명 신호다. 오근세가 계속해서 모르스 신호를 보내는 것은 자신의 준법 행위를 상위계급에게 인정받아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은 내면적 욕구를 드러낸 것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르스 신호는 ‘표정’이다. 김기택은 괴로운 표정으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지만, 박사장 부부에 의해 철저히 무시된다. 박사장 부부는 아들의 생일 파티 같은 사적인 일을 업무라고 여긴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을 열등한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기택 가족은 박사장 부부의 애정 행위를 거실에서 직접 목격하면서, 그들이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며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의 도덕 인격체라는 것을 인식했다. 김기택의 딸이 오근세의 칼에 찔려 죽어갈 때, 박사장은 김기택에게 탈출의 노동력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사장은 그녀가 김기택의 딸인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오근세의 냄새에 기겁하는 박사장을 보는 순간 김기택은 박사장에게 칼을 꽂는다. 존경이 사라진 그의 눈은 박사장이 자신들을 철저히 도구화하고 타자화하였으며, ‘기생충’으로 본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폭력을 통해 존재의 평등성을 주장했다.

II. 《천주정》의 갈등과 폭력

《천주정》은 4개의 이야기로 엮여 있고, 그 내용과 성질에 있어 각각 특징이 있다. 하지만, 모두 동시대를 배경으로 소외계층이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로부터 겪은 갈등과 고통을 해소하고 있다는 특징을 공유한다.

1. 천주정과 무협서사

(1) 《천주정》의 무협 속성

《천주정》은 무협을 표방하고 있다. 무협의 일반적 정의는 무력으로 협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력은 개인 폭력에 속하고, 협의는 관(官)의 가치가 아닌 민(民)의 가치다. 이 민의 가치는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에 반할 수도 있기에, 무력에는 사회적 정의가 부여되기 어렵다. 무협의 두 속성이 사회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려면 어두운 사회가 필요하다. 즉 무협 서사는 관과 대립하는 민의 수단과 가치가 사회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을 비장하게 서사하는 형식이다. 관을 벗어난 민의 정의 실현이란 점에서 ‘천’은 ‘민’이 되고, 천주정은 민이 규정한 사회 정의가 된다. ‘天注定’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이 목적어는 ‘Touch of Sin’의 ‘Sin’이 될 수 있고, 주어인 ‘하늘’은 사회 지배 의식형태이다. 따라서, ‘천주정’은 의식형태가 폭력을 행사하는 이에게 ‘부여한’ ‘원죄’다.

(2) 추방

시스템이 부여한 원죄라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하층계급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다는 것으로, 무협의 “어두운 사회”를 의미한다. 이 어두운 사회는 ‘추방’의 개념과 이어진다. 중국은 50년대 이래 추구했던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부정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아갔고, 노동계급은 노동자의 천국에서 강제로 시장경제로 추방되었다. 영화에는 체제 변화를 의미하는 상징이 나타난다.

(3) 갈등

중국 인민은 같은 노동자계급에서 부의 축적을 통해 일부는 상승했고, 일부는 여전히 가

난한 상태다. 과거에는 동일 계층이었으나 지금은 상하계층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들이 겪는 상대적 빈곤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또, 상위계급은 시스템 속에서 축적된 부의 힘을 통해 가난한 하위계급을 착취하는 폭력을 행사한다. 하위계급은 사회적 불합리와 이들의 폭력에 시달리면서 자신들이 인간 이하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 배경음악인 경극 《백사전·단교》가 상징하는 이미지는 존재의 인식과 갈등이다. 《단교》는 백소정과 허선이 서로의 신분을 인식한 상태에서 다시 만나는 순간을 묘사한 부분인데, 청사가 허선을 죽이려 하지만 백소정이 청사를 만류하는 내용으로 증오와 용서가 교차하는 부분이다. 즉, 《단교》는 신분이 나뉜 노동자계급의 만남, 갈등, 그리고 폭력이 진행될 것을 예고하는 장치다.

(4) 민중적 정의와 체제적 원죄

하위계급에 속한 주인공은 상위계급이 행사하는 폭력으로 극악한 환경으로 내몰린다. 하지만, 이들의 고통은 사회적 통로를 통해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적 폭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이들의 폭력은 가치와 수단적 정당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이들의 폭력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사적 폭력 행사이므로 이들은 시스템에 의해 죄인이 된다. 즉, “체제적 원죄”는 “민중적 정의”를 억압하여 주인공이 정당하다고 느끼는 폭력 행사를 범죄로 기술허 하고, “민중적 정의”는 “사회적 원죄”를 희석하고 폭력 행위의 비장미를 강화하여 범죄자를 영웅으로 만들고 범죄를 사회 정의로 변화시킨다. 이것이 영화가 서사하는 갈등 구조다.

2. 《천주정》의 4가지 이야기

(1) 이야기 1 — 替天行道

후파하이의 갈등은 전체의 부가 사회적 정의에 따라 분배되지 않고, 마을 실력자들에 의해 부정당한 방법으로 사유화된 것이다. 그는 이 문제를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북경의 중앙기율위원회에 전달하려고 하지만 모두 실패한다. 그는 농민에게 매질 당하는 말을 보며 농민의 사회적 존재 위치를 인식한다. 사회적으로, 체제적으로 자신의 정의를 실현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스스로 판관이 되어 그와 갈등한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해한다. 그의 갈등과 폭력은 사회 보편적 정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부의 재분배에 대한 죄악을 방관했다 하더라도, 개인이 행사하는 거대한 폭력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여기에서 의식형태가 부여한 ‘원죄’와 개인 정의의 갈등이 나타난다.

(2) 이야기 2 — 고독한 킬러

두 번째 이야기는 중국 농촌 청년 썬아의 이야기이며, 都農갈등에서 비롯된 폭력이다. 그는 가족 누구와도 화목할 수 없고, 그의 내면은 외부와 극도로 단절된 상태인데, 이는 도시로 수탈된 농촌의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을 상징한다. 농촌 인구는 생존을 위해 가족 정서를 해치고 고향을 버려야 한다. 도시로 간 농촌 청년은 도시의 하층 노동자가 되거나, 도시민의 욕망을 위해 소비되는 매춘여성과 폭력조직원이 된다. 마오쩌둥 시대를 지나 개혁개방 시기 중국 사회에서 농민성이 저열한 취급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의 폭력은 영화에서 피폐한 농촌의 상황으로 잉태된 누와르적 폭력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 처한 모든 농민이 도시에 대한 적개심으로 살인을 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그의 폭력은 개인적 일탈이 되고, 민적 정의도 확보하기 어렵다.

(3) 이야기 3 — 사랑과 존엄

샤오위의 갈등 서사는 두 가지다. 하나는 유부남과의 연애라는 사회적 문제이고, 두 번째는 돈이 위협하는 인간의 존엄의 문제다. 전자에 대해 우리는 그녀에게 ‘시아오싼’이란 낙인을 찍기 쉽다. 하지만 샤오위는 자신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기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다. ‘시아오싼’은 사회 의식형태가 그녀에게 내린 죄명이다. ‘칼’은 인간의 존엄을 상징한다. 장야시엔은 기차를 타면서 칼을 버린다. 이후 장 씨의 아내가 그녀를 찾아와 구

타하고, 그녀는 매춘 봉고차로 피신한다. 샤오위는 여기에서 자신이 장야시엔의 노리개였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돈다발로 그녀를 사정없이 때리며 성매매를 요구하는 두 남자를 만난다. 그녀를 보호해 줄 경찰은 포스터로 존재할 뿐이다. 비인간적 요구에 직면해 그녀는 자신의 존엄을 칼로 지킨다. 비록 여성으로서 남성과 돈의 폭력 앞에 자신의 존엄을 지킨다는 정의를 획득했지만, 그녀는 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이전 이야기와 다른 점은 그녀의 개인적 정의가 관방의 의식형태를 수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 부분이다.

(4) 이야기 4 — 도망자의 끝

네 번째 폭력은 자신을 향하고 있다. 주인공 샤오후이는 90세대에 속하는 신세대다. 그는 광둥의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데, 관리자의 불합리한 작업 요구 때문에 친구를 버리고 동완으로 도망친다. 그는 창핑의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면서 리엔롱이란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그녀는 한 아이의 엄마이며 매춘을 통해 삶을 영위한다. 그들은 비 오는 날 부처를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상징하는 붉은 금봉어를 강에 방생하지만, 금봉어는 강에서 살 수 없다. 그는 결국 그녀를 버리고 동완에 있는 대만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 희망을 약속하는 몇 가지 장면을 서사하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 그는, 친구, 가족(어머니)와 관계 단절을 경험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한다. 그를 나약한 도망자이며 삶을 진취적으로 살지 못하는 비겁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사회적 원죄와 사회 시스템이 중국 청년들에게 견도록 하는 삶의 무게와 도망자의 원죄 가운데 무엇이 더 무거운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5) 엔딩 — ‘네 죄를 알렸다’

《천주정》은 사회적 죄악과 개인적 정의의 갈등을 서사화하고 있다. 사회는 주인공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를 억압하고, 주인공은 이러한 억압을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해소할 수 없다. 여기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존재가 인간 이하라는 것을 느끼고,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폭력을 통해 저항하지만, 이들의 저항은 완전한 사회적 정의 획득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영화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옥당춘》은 소삼이 판관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장면이다. 판관은 무고한 소삼을 향해 ‘네 죄를 알렸다’ 라고 호통친다. 판관은 시스템의 규율을 의미하며, 그에 의해 주인공은 범죄자가 된다. 그러나 사회 규율만으로 그들의 죄를 정의할 수 있을까. 샤오위는 소삼처럼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민중은 판관의 서슬 퍼런 호통을 이해할 수 없다. 그저 무표정한 모습으로 바라볼 뿐이다.

III. 《기생충》과 《천주정》의 서사 비교

《기생충》과 《천주정》은 모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을 서사화하고, 그 갈등의 해결 수단이 폭력이라는 동일성을 지닌다. 하지만 세부적인 묘사에서 차이가 있다.

1. 하위계급에 대한 인간 이하의 비유

《기생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자립 불능으로 인한 인격적 비하를 의미하고, ‘선’과 ‘냄새’에 집중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천주정》에서는 하층계급을 표현하면서 역시 인간 이하의 ‘牲口’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빈곤계급의 인간적 요구가 철저히 무시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2. 인물 서사의 한계

두 영화 모두 하층계급의 인물들이 해당 계급을 벗어난 속성이 있다. 《기생충》의 인물 묘사에서 김기택 가족은 모두 뛰어난 능력을 하나씩 갖추고 있다. 이것은 이들의 계급 대표성을 약화한다. 이 점은 《천주정》도 마찬가지다. 후따하이네 광산 노동자의 속성 외에 지식분자의 속성이 있고, 썬아는 고독한 킬러의 속성이 있고, 샤오위는 하층 여성의 속성보다 우아한 모습으로 묘사되며, 오직 샤오후이만 해당 계급의 속성을 간직하고 있다. 《천주정》의 이러한 인물 묘사는 모두 무협 서사로 인한 것으로 사실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

3. 가족에 대한 묘사

가족이 개인을 보호해주는 최소 단위임은 분명하지만, 《기생충》에 나타나는 가족은 비현실적 건강함(?)을 보인다. 감독의 시선은 의식적으로 가족을 뚫고 들어가지 않고,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 가족에 머물러 있다. 김기택 가족은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택을 중심으로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들의 정서는 가족이라기보다는 끈끈한 우정으로 결합한 사기 조직단이다. 그래서, 가족의 정이 묘사되기는 하지만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 이에 비해 《친주정》의 시선은 사회 경제적 이유로 파괴된 가정의 모습을 파고들고 있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근본적으로 고향과 가족이 없거나 파괴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친주정》의 가족 서사는 하층계급이 겪는 상처를 진솔하게 전하고 있다.

4. 상위계급 인물 묘사

《친주정》에서 주인공들을 억압하는 인물의 모습은 《기생충》에서 그려지는 박사장의 모습과 다르다. 박사장이 자본 권력으로 누리는 사회 문화적 우위가 《친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친주정》의 상위계급은 하위계급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평등하다. 그 원인을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중국은 40·50년대 토지개혁을 진행하면서 지주계급을 종식시켰고,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노동계급의 평준화가 높게 이루어졌다. 현재 중국에서 부를 이룬 1세대의 모습에는 권위의식이 현저하지 않으며, 동일 계급에서 출발했다는 의식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한국 사회는 과거 유교 가치에 기반한 행동규제가 사회 여러 문화에 침투해 있고, 한국인의 내면에는 이러한 규제를 재생산하는 의식 기제가 끊임없이 동작하고 있다. 이것은 박사장의 선에 대한 감각으로 서사화되었다.

5. 갈등 서사와 폭력의 무게

《기생충》은 ‘선’과 ‘냄새’를 통해 수직갈등의 문화적 요소를 섬세하게 보여주었고, 수평적 집단이 생존권 경쟁에서 보여주는 갈등을 집단 속성을 통해 보여주었다. 《기생충》의 폭력은 대체로 부에 대한 탐욕과 가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인물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며 자신에게 위기를 주는 관계를 모략을 통해 제거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가르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사회를 불합리하다고 전제하고 자신 역시 불합리한 존재로 변해 버렸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할 만한 가치를 구현하지 못한 체, 욕망과 가족주의에 기반해 폭력을 행사한다. 김기택은 박 사장을 죽여 자신의 존재적 평등성을 폭력적으로 증명하지만, 다시 시스템 속에 존재를 숨긴다. 그는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얻게 되는 피해가 두려운 것이다.

《친주정》의 갈등 서사는 통속문학적 속성이 있다. 따하이는 《수호전》식의 정의실현을 보여주고, 썬아는 누와르로, 샤오위는 호금전의 《협녀》식으로, 또 샤오휘는 《백사전》의 허선처럼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무협적 묘사는 주인공들이 겪는 갈등과 관객의 거리를 넓혀서 공감력을 감소시킨다. 《친주정》의 폭력은 3층 구조로 되어있다. 제1층차는 불합리한 사회가 주인공들의 삶의 기본적 요구를 억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인공들의 폭력은 개인적 정당성을 획득한다. 제2층차는 주인공들의 존재 자각을 통한 폭력 행사다. 비록 개인적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범죄가 된다. 제3층은 사회체제의 문제다. 주인공들이 폭력적 범죄를 저지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회체제에 도달한다. 때문에, 우리는 폭력의 ‘개인적 정의’와 ‘사회적 범죄’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갈등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폭력이 가지는 무게는 다르다. 인간으로서 기본 요구가 부정되는 하위계층의 상황을 서사화하고, 하위계급이 이를 자각하면서 폭력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서사 구조는 《기생충》에서는 김기택이 박사장을 죽이는 장면에서도 나타나기는 한다. 하지만, 김기택이 자신이 기생충과 같다는 모습을 자각하는 과정에 대한 서사가 부족하여 그의 폭력은 돌출된 느낌을 준다.

IV. 나가며

이상에서 《기생충》과 《천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비교해 보았다. 이 두 영화에서는 모두 돈의 위력을 이야기했다. 김기택은 돈이 많은 사람은 착하다고 했다. 그들이 국문광 가족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는 것이다. 이 말과 ‘후따하이, 너도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똑같았을 것이다’ 라는 말은 비슷한 동질성을 지닌다. 즉, 돈이 인간의 선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선악의 문제는 인간 생존 방식에 관한 판단이다. 두 영화는 모두 생존에 관심을 두었지만 《기생충》은 부에 대한 추구가 행위의 선악 판단 이전에 존재한다. 즉 생존의 실용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둔 것이다. 이에 비해, 《천주정》은 생존의 사회 도덕적 가치에 대한 고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두 영화가 바라보는 가치지향은 달랐다. 인간은 삶의 좁은 길을 걷어가는 시련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불합리한 사회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삶과 생명을 요구한다. 김기택 가족은 이 위협에 굴복해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당당하게 증명하는 데 실패했고, 《천주정》의 인물들은 비록 사회적 정의에 속하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당당하게 증명했다. 《기생충》의 박사장과 김기택이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인은 부정적 생각을 보였다. 비록 허구적 서사지만 《천주정》에서 후따하이는 지아오성리의 환영식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계급에 따른 행위 규제가 한국만큼 세밀하게 통제되지 않는다. 한국인은 때로 이것을 통해 문화적 우월성을 느끼지만, 진실한 권위는 형식이 아니라 실존으로 자신을 증명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